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②	①	④	④	①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③	③	④	④	②	③	④

1. [정답] ① [어문 규정. 난이도 中]

[풀이] ‘출산율, 자장면(=짜장면), 타슈켄트’ 모두 맞다. 참고로, ‘타슈켄트(Tashkent)’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오답]

- ② : ‘갯수’가 아니라 ‘개수(個數)’이다.
- ③ : ‘컨셉트’가 아니라 ‘콘셉트’이다.
- ④ : ‘호치민’이 아니라 ‘호찌민’이다.

2. [정답] ② [어문 규정. 난이도 下]

[풀이] ‘걸잡다’가 아니라 ‘걸잡다’이다. ‘걸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는 뜻이며, ‘걸잡을 수 없이’의 형태로 사용된다. 참고로, ‘걸잡다’는 ‘걸로 대강 보다’의 의미이며, ‘걸잡아 백명’의 형태로 사용된다.

3. [정답] ③ [문학. 난이도 中]

[풀이]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선천하지우이우 후천하지락이락)’은 ‘천하 사람들의 근심에 앞서 내가 먼저 근심하고 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 한 뒤에야 즐기라.’라는 의미이며, 줄여서 ‘선우후락(先憂後樂)’이라고 한다. <관동별곡>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㉔의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다시 만나 한 잔 하자’는 구절과 관련이 있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심리가 드러난다.

4. [정답] ② [한자. 난이도 上]

[풀이] ‘법안을 상정하다’의 ‘상정’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의 의미로, ‘上程(위 상, 규칙 정)’으로 표기한다. ‘인재를 배출하다’의 ‘배출’은 ‘인재가 계속하여 나옴’의 의미로, ‘輩出(무리 배, 나올 출)’로 표기한다.

[오답]

상정(詳定) : 나라의 제도나 관아에서 쓰는 물건의 값, 세

액, 공물액 따위를 심사하고 결정하여 오랫동안 변경하지 못하게 하던 일. (자세할 상, 정할 정)
 배출(排出) :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밀칠 배, 나올 출)

5. [정답] ① [문학. 난이도 下]

[풀이] <보기>는 송강 정철이 지은 이별의 시조이다. 돌부처는 마주 보며 이별하지 않지만, 인간은 이별하기에 슬프다는 내용이다. ‘돌부처에 대한 신앙’이나 ‘풍자’와는 관계가 없다.

6. [정답] ④ [한자. 난이도 上]

[풀이] ‘칠십이중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는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로, ‘칠십은 마음이 따르는 바대로 하여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지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의 성품과 지혜가 단계적으로 성숙한다.’는 문장과 관련이 있다.

[오답]

- ① :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 :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
- ② :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 예로부터 사람이 칠십을 살기는 드문 일이다.
- ③ : 타산지석가이공옥(他山之石可以攻玉) :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

7. [정답] ④ [비문학 순서. 난이도 中]

[풀이] 박지원이 <초정집서>에서 말한 ‘법고창신(法古創新)’과 관련된 글이다. ‘법고창신’은 ‘온고지신(溫故知新)’과 같은 말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다.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순서가 ‘(나)-(라)-(가)-(다)’이다.

8. [정답] ① [문학. 난이도 下]

[풀이] ㉠‘도요새’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 화자가 반가워하고 있다. 반면, ㉡‘철새나 나그네새’는 자유로이 왕래하는 존재로, 고향으로 갈 수 없는 화자와 대조적인 존재이다.

9. [정답] ①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지문의 중간 부분에 ‘비관’에 대한 칼 포퍼의 입장이 나온다. ‘과학자는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10.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제목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며 핵심 소재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 시대’로 시작해 끝부분에 ‘소셜가의 변화’가 나오므로 답은 ②번이다.

11. [정답] ③ [문법. 난이도 下]

[풀이] ‘산동네[산똥네], 보름달[보름딸]’은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다. 합성어 중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만나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오답]

- ① : ‘늡[능는]’은 자음동화, ‘않고[안코]’는 자음축약이다.
- ② : ‘만형[마형]’은 자음축약, ‘쇠붙이[쇠부치]’는 구개음화이다.
- ④ : ‘생일날[생일랄]’은 자음동화 중 유음화, ‘추진력[추진력]’은 자음동화 중 유음화의 예외로, 비음화이다. 같은 자음동화이지만 유음화와 비음화를 구별해야 하므로 동일한 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12. [정답] ② [띄어쓰기. 난이도 上]

[풀이] ‘이분(대명사)’은 붙여 쓰고, ‘총무 팀’은 각각의 명사이므로 띄어 쓰며, ‘겸’은 두 말 사이에 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감사 부장’은 각각의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 ① : ‘갔을걸요’는 붙여 써야 한다. 이때의 ‘-르걸’은 종결 어미이며, ‘요’는 보조사이다. 예를 들어, ‘봤을걸요, 했을걸요’ 등도 모두 같은 경우이다. 참고로, ‘갈 걸 그랬어.’의 ‘걸’은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띄어 쓴다.
- ③ : ‘알아보시는’을 붙여 써야 한다. ‘알아보다’는 한 단어이다.
- ④ : ‘한번’을 붙여 써야 한다. 이때는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의미하므로 붙여 쓰는 합성 명사이다.

13. [정답] ③ [문장부호. 난이도 下]

[풀이] ‘춘원(6·25 때 납북)’으로 고쳐야 한다.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는 소괄호를 적는다.

14. [정답] ③ [어법. 난이도 上]

[풀이] ‘예전에 A하였으나, 이제는 B하게 되었다’의 구성이므로 ③번은 연결이 자연스럽다.

[오답]

- ① : 주술 불일치이다. ‘이 도시는 ~ 담당해야 한다.’ 또는 ‘이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다.’로 고쳐야 한다.
- ② : 전체의 주어가 결여된 문장이다.
- ④ : 부당한 공유이다. ‘해외여행’을 ‘관람’하지 않으므로 서술어를 추가해 ‘해외여행을 하거나’ 등으로 고쳐야 한다.

15. [정답] ③ [도표 해석. 난이도 中]

[풀이] ③번은 표에 대한 해석은 맞는 듯하나, 격식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최송하다’를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사용한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16. [정답] ④ [표준 언어 예절. 난이도 中]

[풀이]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따라서 “선생님, 저의 어머니이십니다.”가 적절하다.

[오답]

- ① : 자신의 본관을 소개할 때는 ‘O가’라고 하고, 남의 성을 말할 때는 ‘O씨’라고 한다.
- ② : 자신을 ‘부인(夫人)’이라고 높이지 않는다. ‘아내’가 적절하다.
- ③ : 시청자가 더 높임의 대상이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17. [정답] ④ [한자. 난이도 上]

[풀이] ‘편철하다(編綴--)(엮을 편, 엮을 철)’는 ‘통신·문건·신문 따위를 정리하여 짜서 철하거나 모으다’는 의미이다.

[오답]

- ① 예단(豫斷) : 미리 판단함. 또는 그 판단. (미리 예, 끊을 단)
- ② 경주하다(傾注--) : 힘이나 정신을 한곳에만 기울이다. (기울 경, 부을 주)
- ③ 충일하다(充溢--) : 가득 차서 넘치다. (채울 충, 넘칠 일)

18.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두 번째 단락의 ‘그러나’ 이후에 주목해야 한다. 예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가르는 선을 고

기를 먹는지 여부로 정했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와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했으므로 ②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 첫 번째 단락. ③ : 세 번째 단락. ④ : 두 번째 단락.

19.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보기>에서 ‘이것’과 ‘논리’가 힌트가 된다. ㉠의 앞쪽 내용은 동양 학문의 특징이므로, 서양의 ‘논리’와 대비되는 내용이 ㉡에 나와야 한다.

20. [정답] ④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보람을 느낀 것은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 첫 번째 단락. ② : 첫 번째 단락. ③ : 두 번째 단락.

<2014년 국가직 7급 국어 총평>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출제 결과

	유형	문항수	비율
1	비문학	6	30%
2	어휘	4	20%
3	문학	3	15%
4	문법	2	10%
5	한자 표기	2	10%
6	어문 규정	2	10%
7	언어 예절	1	5%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비문학과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 전년도 2012년 국가직 7급에 비해서 다소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 비문학과 어휘 문제가 늘었고, 문학이나 문법, 한자 표기, 어문 규정 등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한자성어, 속담, 띄어쓰기, 표준발음, 관용어, 어법 문제, 외래어 등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전년도 문제를 분석하되,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기출 예상의 적중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번(품사), 3번(한자), 9번(비문학 주제), 11번(비문학 일치), 13번(한자), 20번(고전 문법) 문제 등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기초 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7급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한자 문제 역시 표기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2013년 국가직 7급>에서는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소재도 다양해졌으며, 문항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비문학 독해 관련 문제를 꾸준히 풀어야 합니다. 수능형 문제와 연계됨을 의미하므로 다양하고 긴 지문에 대한 독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일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선지들과 관계를 파악해 보면 답을 도출할 수 있었으므로 선택지에 대한 감각(感)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험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 시험 후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고 냉정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국가직 7급의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허탈해 하고 리듬을 잃기보다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의 시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합격을 기원합니다!